

# 부부관계의 위기 진단

백상창 / 건강가정 아카데미(www.healthymind21.com)

**피**자는 정신과 의사로서 또한 서울가정법원에 서 지금까지 40여년간 조정위원으로서 관찰해 본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부부들이 어떻게 하면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몇가지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부부갈등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겠지만, 오늘날 급격히 변동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

## 부부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부부간에 금이 가고 있는 첫번째 증거는 폭행이 잦아지는데서 찾을 수 있다. 물론 여성이 남편을 폭행하는 경우도 현재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대개는 남성이 폭행을 하게 된다. 많은 경우에는 음주벽이 있는 남성, 평소에 열등의식이 강해서 부인에게 양심을 품고 있는 경우,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일찍 사망해서 남성적 요인이 결여된 경우를 들 수 있다.

부부위기의 두번째 적신호는 부부간에 말이 없게 된다는 점이다. 평소에 이해심 많고, 잘 웃으며, 다정다감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무엇 때문인지 혼자 끙끙 앓고 있거나 몇일 몇주가 지나도 마음의 소리를 앓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한쪽에 우울증이 심하게 되었거나 그야말로 이혼해도 된다는 생각 때문이라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하겠다.

부부간에 위기가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세번째 증

상은 부부 중 한쪽이 부단히 아프거나 신체증상이 집요하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들 수 있다. 신체증상은 그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이도 있으나 그것이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는 크다 할 것이다. 가령 남편이 원망스러우면 저절로 부인에게 신경통이 오는 것을 보게 된다.

부부간의 관계가 중요한 고비를 넘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네번째 증상은 성(性)에서도 찾을 수 있다. 금실이 좋던 사이였는데 수주일, 수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다고 하면 무엇인가 염증을 느끼게 되었거나 큰 오해를 한 경우라 할 것이다. 현대 남성은 다 그런 경향이 있지만 성적능력이 저하되고 있는게 특징으로, 일에 시달렸거나 우울증이 오거나 혹은 부인을 의심하는 경우에는 성적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됨을 종종 보는 것이다.

부부간의 문제가 생긴 것을 판별하는 다섯번째의 증상은 가출이다. 특히 부인이 편지 한장 써놓지도 않고 중요한 서류나 핸드백을 들고 집을 나가서 소식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라 하겠다. 평소 남편이 너무 무섭게 굴었거나, 애당초 애정이 없이 강제로 결혼을 했다고 억울해 하는 사이이거나, 아니면 친정어머니나 오빠 등이 계속해서 남편을 “뭍쓸 녀석” 이라고 비난 하는 경우에 부인이 가출해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물론 반대로 남편이 출근

“인생에는 묘한 리듬이 있어서 너무나 같은 생활을 따분하게 되풀이 하게 되면 피로가 오고 권태가 오기 마련이다. 때문에 한번씩 분위기를 바꾸어 시각, 청각의 변화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한다.”

한다고 나가서는 간다온다 말없이 증발해 버리는 경우도 없지는 않으나 이것은 일본에 비하면 우리 사회는 극히 드물다 하겠다.

### 그렇다면 처방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부부갈등을 넘어서고 노이로제나 정신병에 걸리지 않으며 서로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가?

첫째로 부부는 모름지기 일생의 목표를 더불어 얘기하고 더불어 설계하며 더불어 추진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해야겠다는 점이다.

두번째 처방은 물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공감의식을 길러야겠다는 점이다. 옛날과 달라서 현대 사회는 너무도 많은 변화가 닥쳐오고 있으며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직접 간접으로 받아가면서 사는 시대라 할 수 있다.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하겠다. 때문에 한번씩 아내는 남편의 입장이 되고 남편은 아내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로 중요한 것은 같은 생활의 장이고 같은 집이요 방이라 할지라도 한번씩 분위기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인생에는 묘한 리듬이 있



어서 너무나 같은 생활을 따분하게 되풀이 하게 되면 피로가 오고 권태가 오기 마련이다. 때문에 한번씩 분위기를 바꾸어 시각, 청각의 변화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한다.

부부간의 갈등을 넘어서고 건강하게 사는 네번째 처방은 사명감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점이다. 오늘날은 무분별하게 서양의 풍조가 들어와서 서로가 자기를 사랑해 주는가를 따지게 되고 자신의 마음에 안드는 경우에는 곧장 신경질을 내는 경우를 보게 된다. 그러나 오랜기간 동안 관찰해보고 같이 생각해 보면 인생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게 아니라 서로를 위하고 주변을 위하여 모든 것을 위하는 방향의 삶을 살때에 더욱 굳건한 행복이 자리잡게 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PPK